

# ‘힘내라 소비자’… 전북소비자 대회 개최

소비자 권익증진 유공 민간인·공무원 26명 표창장 수여·도청 1층 로비에서 9일까지 ‘찾아가는 소비자 정보전시회’ 병행

전북도가 주최하고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지회장 유유순)가 주관하는 ‘제25회 전북소비자대회’가 1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강당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25회째를 맞은 ‘전북소비자 대회’는 소비자의 날(12월 1일)을 기념해 전북지역 자체적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올 한 해 동안 소비자 권리증진 활동에 공로가 큰 유공자 26명에게 표창이 수여됐고, 농촌지역·중·고등학생 10명에게 30만원씩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이어, 양성빈 소장(지역연구소)로부터 ‘고향사랑 기부제’ 주제로 유익한 특강이 진행되었고, 전북도청 1층 로비에서는 슬기로운 소비생활 찾이카는 소비자 정보전시회’가 운영됐다.

이 전시회는 오는 9일까지 운영된다.

그간 전북도는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 대상별로 적합한 소비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체계적이고 안정된 교육을 추진하는 등 소비자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전문 소비자리더를 양성해 고령자·초등학생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으로 인형극을 통해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 대상 경제교육, 다문화



전북도가 주최하고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가 주관하는 ‘제25회 전북소비자대회’가 1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강당에서 개최됐다.

화 이주여성, 주부 등 매년 8천여명을 대상·현장 중심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03년부터 1층 민원봉사실에 전라북도 소비생활센터를 설치하고 전문 상담요원을 배치해 각종 피해를 예방하고 협력적인 소비생활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소비자 보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소비자교육증인회전북지부 등 지역내 소비자단체와 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

계를 구축하고 교육역량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편,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에서는 1983년 지회를 개설한 이래 39년간 소비자 피해구제 및 상담, 이동 상담실 운영, 소비자교육 체험관 운영 등 소비자 주권 향상에 기여해 왔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통신 판매(인터넷쇼핑몰)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통신판매업자 2만1,101개소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및 통신판매사업자의 전문가 양성 교육, 통신판매 이용

자 설문조사 및 간담회 등 소비자와 인전할 권리, 일련의 등 8대 권리 실현을 위해 다양한 사업 추진을 해왔다.

김종훈 도정무부지사는 “신기술들이 각종 혜택을 누리게 해주는 동시에 소비자 문제를 야기시키는 등 소비생활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정보에 취약한 소비자가 현명하고 책임있는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 체계적 제공 등 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경수기자

## 전북 우수 수산 식품, 수도권 공략에 나선다

수도권 박람회에 도내 우수 수산식품 27개 업체 참가… 판로개척 교두보 마련

3일까지, Sea Farm Show 수산양식박람회 · 8~11일, 메가쇼 팔도밥상 페어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가 도내 수산식품의 수도권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을 위해 오는 12월에 개최되는 수산식품 박람회에 참가한다.

전북도는 해양수산분야의 우수한 기업과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운영 중인 전라북도 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전북바이오후안산업진흥원, 이하 센터)를 통해 도내 수산식품 기업 27개 업체가 경기도 일산에서 개최되는 2022 Sea Farm Show 수

산식박람회(12. 1~3/일산 킨텍스)와 수원에서 개최되는 2022 메가쇼 팔도밥상 페어(12. 8~11/수원 컨벤션센터) 박람회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2022 Sea Farm Show 수산양식박람회는 1일부터 3일까지(3일간) 해양수산부, 동아일보, 채널A 주관으로 일산 킨텍스 전시장에서 열린다.

이 박람회에는 전국 대비 내수면 어업 생선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향어(74.7%), 미꾸라지(63.6%), 메기

(50.3%) 등 관련 5개 업체가 참여해 전라북도 내수면 수산양식 산업의 우수성을 알리고, 내수면 수산물 소비 촉진을 도모할 예정이다.

그동안 민물고기는 특유의 잡내로 장어를 제외하고는 수요층이 많지 않았으나, 이번에 센터 지원 사업을 통해 잡내도 없이고 맛도 뛰어난 향어 스티ック 뼈째먹는 향어등 간편식 요리 상품을 개발해 이번 박람회에 홍보·판매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향어 초밥,

향어회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2022 메가쇼 팔도밥상 페어는 12월 8일부터 11일까지(4일간)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다. 국내 박람(전시)회 전문기업인 메가쇼(megashow)에서 주최하는 이 행사는 전국 각 지역의 우수 농·수산 특산물을 직접 맛보고 구매할 수 있는 국내 최대규모의 식품 판매전이다.

도는 이번 2022 메가쇼 팔도밥상 페어에 간경계장, 김부각, 젓갈류, 박대, 다시 꽈 등을 주력으로 전라북도 해양수산공동관(22개社)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참가기업에 사전고객 대응 교육을 실시하고, 전원 요리사 복장을 착용해 청결한과 신선한 이미지를 내세운 감성마케팅을 통해 타 시도와 차별화 판매전략으로 소비 촉진 및 판매할 예정이다. /김경수기자

## 국민연금공단,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100문 100답’ 발간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의 궁금증을 쉽게 풀어주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100문 100답’을 발간·배포한다고 1일 밝혔다.

문답집은 공단에서 지난 10여 년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신청

자·수급자·서비스 제공기관·지자체들로부터 자주 마주한 질문들을 사례를 중심으로 쉽게 풀어썼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가 신

체·기기지원, 활동보조 등 서비스를 제공, 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국민연금공단은 지자체·사회보장정보원과 협력해 활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서비스 품질평가·부정수급 예방 등 활동지원제도 운영 전반을

지원하고 있다.

문답집은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대상 등 활동지원제도 전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공단은 전국 활동지원기관 800여 개소에 배포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홈페이지(www.ableservice.or.kr)에서도 게시해 누구나 간편하게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태기자

## 동학농민운동, 세계가 함께 기념한다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기념 제1회 세계 혁명 도시연대회의 개최

독일 등 해외 5개국 참가·근대 혁명 도시들과 연대·협력

정읍시가 동학농민혁명 128주년을 맞아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세계의 혁명 도시 초청 국제 컨퍼런스를 연다.

이번 행사는 정읍 황토현 전적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열려 정읍시가 기념재단의 협력사업으로 진행된다.

시는 올해 ‘제1회 세계 혁명 도시 연대회의’에 아르헨티나의 알타그라시아, 이탈리아의 더블린, 독일의 뮌헨우겐, 일본의 삿포로, 중국의 웨이안 등 5개 도시의 농민 혁명 연구자와 활동가를 초청했다.

이 가운데 남미의 전설적 혁명가인 체 게바라의 친조카인 마틴 게바라 두아르테가 컨퍼런스에 직접 참석해 발제를 맡는다. 마틴 게바라 두아르테는 체 게바라의 딸세 형제 중 막내인 후안 마틴의 장남으로 현재 스페인과 아르헨티나 등에서 게바라 연구가이자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일본은 훗카이도의 저항정신과 미쓰리에 대해 삿포로 대학의 교수들은 연구자인 요코시마 고지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세계 혁명 도시들의 발표에 앞서 5일 오전 이학수 시장과 해외 참

석자들은 정읍 황토현 전적의 전봉준 장군과 동학농민군상에 현화하고 혁명 도시 간의 연대선언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시는 이번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 정읍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을 혁명정신의 세계적 확산과 도시 간 연대라는 새로운 가치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을 ‘주모와 위로’ 중심에서 ‘혁명과 미래’를 향한 메시지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제 컨퍼런스가 소수 연구자들의 학문적 잔치가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축제의 징이 될 수 있도록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시가 동학농민혁명뿐 아니라 기념사업의 중심지로서 역사적인 역할을 해왔으나 이제는 기념사업 자체를 새롭게 혁신해야 한다”며 “이번 세계 혁명 도시 연대 회의가 이러한 사업의 첫 단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한 해외 참가자들과 시민들은 6일 정읍의 주요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답사하며 기념사업의 경험과 방식을 공유하는 작은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 전북여성새일센터 인사담당자 워크숍

(재)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전정희)는 지난 11월 30일 일·생활균형문화 확산을 위한 인사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성장을 대표팀 경영컨설팅)가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TSC의 이해와 중소기업의 대응전략 특강을 진행했다.

또 최정칠 팀장(전주고용센터)의 ‘2023년 변화되는 고용정책’과 최명진 노무법인 정훈(2023년 근로기준법의 이해’ 등을 통해 달라지는 정책을 안내했다.

뿐만 아니라 전북새일센터의 2023년

도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인사담당자 인식 확산 및 새일센터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지속적인 유대관계와 우수인재 채용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도 형성했다.

인사담당자 워크숍에 참여한 기업 CEO와 인사담당자들은 센터 취업지원 사업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며, 기업 간 네트워크의장을 통해 향후 여성인력의 지속고용과 다양한 노력으로 여성과 기업이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로 약속했다.

자세한 사항은 취업지원팀(063-254-3610)로 문의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주매일의 창간 14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교산상공회의소

회장 김동수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http://www.jmaeil.com)

